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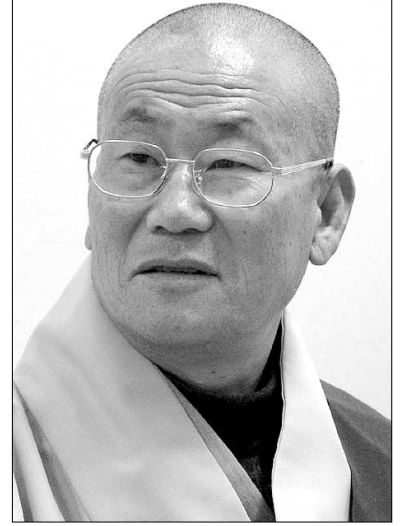
빛고를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8강: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천안제일 아나올

강사: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

공동주최: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
일시: 2005.11.23 / 장소: 광주 KT정보센터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 천안제일 아나올(阿那律, Anuruddha) 존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불교의 인과응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나올 존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에서 법을 설하고 길을 떠나자 가뭄에 시달려 있던 500명의 왕자와 청년들이 부처님을 따라 나옵니다. 이때 사촌동생 아나올도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 제자가 된 아나올은 진지하게 수행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법자리에만 오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부처님이 하루는 아나올에게 물었습니다. “아나올아, 너는 국가의 법이 무서워 출가를 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도적이 무서워서 출가했느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바로 천안통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깨치면 속명통, 천이통, 천안통 등神通력이 생깁니다. 아나올이 천안통이라 불리는 것은 현재를 통찰하는神通력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고 강가에서 화장을 하는데 불이 붙지 않습니다.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습니다. 그때 아나올 존자가 말하기를 “부처님을 돌보는 신들이 가섭 존자를 기다리며 불을 붙이지 않게 하고 있으니 가섭 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때 가섭 존자는 제자 500명과 다른 곳에서 교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섭 존자가 도착하고 불이 붙어 다비를 하게 됩니다. 아나올 존자의 천안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이 멀거나 장애를 가지면



11월 23일 광주 KT정보센터에서 열린 빛고를 불교아카데미 여덟번째 강에서 호진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을 큰 독에 물을 넣고 녹이면 그 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이지만 물의 양이 많으면 적으니까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기운명은 자기 이외에 책임질 존재가 없습니다. 지옥중생이 되느냐 천상의 존재가 되느냐, 부처가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운명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푸는 것입니다.

질의응답

문: 어떤 사람은 부처님에 태어나 필요를 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마자 다리 밑 거처에 누워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출발부터 불평등합니다. 함께 잘 살수는 없나요?

답: 불교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자기 탓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이런 집에 낳아 고생시키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복을 짓지 못했으니 내 밑으로 왔지” 합니다. 복을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좋은 집에 태어나고,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를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5시간 일할 때 자기는 10시간 공부하고 일해서 개선시켜야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전생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간섭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반성하고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노력해서 이번 생에 내 인생을 바꾸고, 다음 생에 더 잘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노력과 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보시고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하든 운명을 바꿔야 합니다. 윤회와 업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책임과 함께 항상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를 속명론이나 운명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리·사진=이준영 기자

의도된 행위에 윤리요소 있어야 인과 성립

자기운명은 철저히 자기가 만들고 푸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출가했느냐?”

“저는 인간의 영원한 문제인 생로병사를 이겨내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아나올아, 너는 그런 굳은 신심으로 출가했다면서 왜 설법 때마다 졸느냐?”

“부처님, 앞으로 다시는 졸지 않겠습니다.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졸지 않겠습니다.”

이때부터 아나올은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합니다. 결국 눈에 병이 나자 부처님의 의사 지바에게 치료요를 받습니다. 지바가 진찰을 하고보니 아나올의 눈은 잠을 자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치료약이 없으니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올은 ‘부처님께 맹세했다’며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합니다. 결국 아나올의 눈은 멀어 버립니다. 그러나 육안이 완전히 멀어버린 대신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으로

전생에 무슨 업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며 인과를 생각합니다.

불교의 인과응보를 통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을 뜬 아나올 존자의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응보는 불교 용어입니다. 선이나 악으로 지은 행위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는 것으로 현재의 모습은 전생의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불교이외에 전생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자들 가운데 인과법칙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과는 틀림없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로부터 감나무에 감을 몇 개 남겨둬도, 지나가는 새들이 겨울에 먹으라는 배려해서입니다. 지나가면 까마귀가 먹으려다 그만 감을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때 나무 밑에 있던 까마귀를 덮쳐 감이 죽어버립니다. 까마귀는 다음 세상에 돼

지가 되고 까마귀는 죽은 뒤에 뱀이 됩니다. 돼지가 칩뿌리를 먹으려고 땅을 파다 바위를 굴러 아래에 있던 뱀이 죽습니다. 까마귀가 까마귀를 죽이고, 그 과보로 까마귀가 까마귀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인과가 틀림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까마귀가 까마귀를 죽이고, 다시 까마귀가 까마귀를 죽이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인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주어지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불교에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업(業)을 뜻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은 꼭 업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지 보통의 행동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업을 직업과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의 업은 행위입니다.

업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상 행동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야겠다’는 의도적 행위를 해야 합니다. 꿈속에서 행동을 하거나, 밤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벌레를 밟아 죽이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잠결에 모기를 탁 친 것은 의도적인 살생은 아닙니다. ‘유행’하며 신경을 쓰이게 하는 모기를 보고 계속해서 죽여야 할

때 의도된 행위가 됩니다.

또한 의도된 행위라고 해서 모두 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과 악이라는 의도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은 의도적인 행위이지만 그것은 윤리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선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도된 행위에 윤리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진짜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업이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라도 조건이 빠지면 무기업이 됩니다. 기록이 안 되는 업입니다. 업은 업인데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업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은 선업, 악업, 무기업 세 가지가 있으며 무기업을 빼고 흔히 선업, 악업으로 나눕니다.

이처럼 두 가지 요소가 이루어졌을 때 인과의 법칙이 성립됩니다.

업을 지으면 틀림없이 결과가 나옵니다.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씨앗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거름을 닦아도 주어도 결과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 씨앗과 가지 씨앗을 심으면 고추 씨앗에서는 고추가 나오고 가지 씨앗에서는 가지가 나옵니다. 조금 더 좋

은 고추, 아니면 나쁜 가지가 나올 수는 있지만 고추 씨앗에서 가지가 나오거나 가지 씨앗에서 고추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장과정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 속에서 벌써 고추, 가지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법칙입니다.

이처럼 내가 업을 지었으면 아무리 옆에서 간섭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하느님도 내가 지은 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은 업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각각 토끼를 한 마리씩 죽였습니다. 똑같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토끼를 죽이고 난 뒤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업이 다르게 됩니다. 업이 다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토끼를 죽이고 난 뒤에 한 마리 죽이나, 두 마리 죽이나 죽이는 것은 마찬가지로 더 죽여 버리자며 자주 나쁜 짓을 하면 업이 더 크게 불어나고, 토끼를 죽였는데 다른 짓을 해서 다른 짐승을 살려주면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의 상해작용이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움큼의 소금을 작은 그릇에 넣어 녹이면 짜서 먹지 못합니다.

2006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요강

1. 모집과정 및 인원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석, 박사) - 역경(석, 박사)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 실천불교(석, 박사)(포교사회) - 불교문화재학(석사)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전공(석사)	

* 불교문화재학전공은 졸업후 학에서(3급)자격증 취득 가능

2.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박사과정은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취득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조계종총회로부터 인정된 타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 2005. 11. 28(월) ~ 12. 9(금) 17:00까지

2) 전 형 일: 2005. 12. 14(수) 12:00 (박사과정) / 14:00(석사과정)

3) 합격자 발표: 2005. 12. 19(월) 11:00

4) 등록 기간: 2005. 12. 20(화) ~ 12. 30(금)

4. 전형방법

- 석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
- 박사과정: 논술(A4용지 1매내외)

5.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3) 석사과정 대학졸업(예정)증명서 / 박사과정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1부
- 4) 석사과정 대학성적증명서 / 박사과정 대학원성적증명서(백분율 성적 기재부) 1부
- 5) 승적증명서 (3개월 이내) 1부. (최종수개월 기입 요)
-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 7) 주민등록등본 1부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1) 원서대: 무료
- 2) 전형료: 박사과정 50,000원 / 석사과정 40,000원

7. 사정원칙

-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허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 사정회에서 결정함. 입학지원: 대학원 위원회

8. 지원자 유의사항

-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415-070 경기도 김포시 중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 전화: 031)980-7862 / FAX: 031)980-7863
- 특전: 1) 조계종 소속 승려(구속계수지자는 장학금혜택이 있음) 2) 각종 교내·외 장학금 지급 3) 전공별 대학원 연구실 제공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제36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www.burec.org

『찬바람 쐬고, 신나는 우리절』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보다 다양하게 교화시킬 수 있도록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각 사람의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강습하고자 합니다. 특히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교사 및 법사님, 스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였으며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교육 내용 또한 집중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포교에 관심있으신 불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일 시: 불기 2549(2005)년 12월 11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장 소: 구룡사(서울 양재동 소재)
[교통편 안내] 지하철 3호선 양재역 (5번 출구 100m정도 직진 육교 밑 셔틀버스 승차차 일반버스 4312, 406번 마을버스 09, 18, 21, 23번)
- 교육내용: 레크리에이션 댄스 법당에서 인형극을.. 달마야 놀자 풍선을 이용한 법당 꾸미기 신 찬불가와 율동
- 참 가 비: 일반 35,000원, 회원 30,000원, 도서벽지 및 군중 10,000원
- 준 비 물: 필기구
- 접 수: 전화 및 인터넷 접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홈페이지 www.burec.org 온라인 구좌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협 회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문 의: 02)738-7860(대), 02)739-4967, FAX 02)738-7863(본회 사무국)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불교 레크리에이션 협회